

# 1년간 인재 8000명 육성, 디지털 전환... 조선강국 '쾌속 항해'

글로벌 조선업 침체 딛고 회복세  
업황 개선 기회삼고 전략 추진

신규인력 수급하고 인건비 지원  
교육 확대 등 구인난 해소 유도  
K-스마트십 개발·상용화 추진



9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왼쪽부터)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이 조선산업 미래 핵심인력(설계 R&D) 양성을,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이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 미래기술 개발 관련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기간 침체되었던 글로벌 조선산업이 재도약 시기에 접어들면서 정부도 1등 조선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에 본격 나선다.

정부는 9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 조선산업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장기 침체를 겪었다. 다수 조선업체의 퇴출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축소, 조선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 타격 등이 이어졌다. 그러다 2016년 수주절벽 이후 느린 회복세를 거쳐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연말부터 LNG 연료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수요 증가 추세다.

정부는 최근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우위를 가진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세계 선박시장 시황이 회복 중이라는 점, 우리 조선업계 수주 실적 개선 중이라는 점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 수주는 2016년 224만CGT까지 추락했다가 2019년 947만CGT, 2020년 811만CGT로 주춤했으며, 이후 2021년 1~7월까지 1285만CGT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우위를 가진 고부가·친환경선박 중심으로 세계 선박 시장이 확대되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세계 1등 조선강국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 ◆13년 만의 최대 수주실적

우선 최근의 수주실적 호조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조선분야 일자리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숙련인력 고용유지와 복귀, 원활한 신규인력 수급을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가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자체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모형을 현재 경남지역에서 울산·부산·목포 등 조선업 밀집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퇴직 후 3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동일업종에서 재고용하는 경우 채용장려금(월 30만~50만원, 최대 8개월)을 지급해 퇴직인력 재고용을 촉진한다.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생산·기술인력 양성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신규채용인력 인센티브(월 100만원, 2개월)를 신설한다. 협력사 직원에 대한 주거, 의료비·학자금 등 복리후생 지원을 강화해 신규인력과 원청 퇴직자 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도장 등 기피업종의 외국인근로자도 입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조정해 신규인력 인력풀을 늘려 탄력적인 인력수급 관리를 지원하고,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별·분야별 구직정보를 제공 수급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세계 1위 수주량에 맞는 조선소 스마트 야드 구축과 기자재 생산공정 자동화 등 디지털기반 생산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용접과 도장, 물류, 블록조립 등 인력부족으로 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분야 기술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물류·생산 등 전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과 최적화된 생산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생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 ◆친환경·자율주행 선박 선도

저탄소 선박 기술 국산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친환경선박 시장 주도권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과 자율주행선박의 세계시장점유율 목표를 각각 75%, 50%로 잡았다.

LNG추진 선박의 핵심 기자재 국산화·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중

소형 친환경선박 특화기술도 개발한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 LNG병커링(연료공급) 실증을 위한 전용선박 2척을 건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울산·부산·광양·인천·평택 등 주요항만에 육상 LNG 병커링 터미널을 구축한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 388척의 친환경선박을 대체하고 금융지원 등을 통해 같은기간 민간부문 140척의 친환경선박 전환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LNG선 다음단계인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상용화(~2050년)와 시장선도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적용한 K-스마트십 개발과 상용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총 1603억원을 투입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한다. 올해 12월 이후 성능실증센터 구축과 시험선박 실증 추진하고, 2023년까지 법적 기반 마련, 2025년까지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에도 나선다.

### ◆중소조선소·기자재 업계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조선소 및 기자재업계 지원을 통한 조선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미래 유망 중소형선박과 공공선박 표준선형을 연구해 신모형을 개발하고,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2차전지 대장株 LG·삼성 '엮치락 뒤치락'

### >> 1면 '급변하는 코스피'서 계속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시총 100조원은 시간 문제"라며 "스노우에서 독립한 네이버 손자회사 3사(제페토·케이크·크림)의 기업가치가 메타버스 확산, 영어교육 및 리셋 플랫폼의 경쟁력이 부각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 중"이라고 평가했다.

2차전지 대장주를 놓고도 LG화학과 삼성SDI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LG화학이 제너럴모터스(GM)의 볼트 전기차(EV) 배터리 리콜을 추가 결정하자 10억달러 수준의 막대한 부담금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날 이후 LG화학의 주가가 하락하자 지난 5일 삼성 SDI가 2차전지 대장주에 이름을 올렸다. 8일 다시 LG화학이 업종 내 대장주를 탈환해 1조원 가량 시총이 앞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약진도 돋보인다. SNE리서처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까지 글로벌 EV용 배터리

사용량 조사에서 점유율 5위를 기록해 삼성SDI(6위)를 제쳤다.

주민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자국 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40~5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신규투자 및 수직계열화 발표와 함께 2차전지 업체들의 실적 전망치 상향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펅크,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신규상장과 동시에 시총 상위 종목에 등장하는 경우도 찾아졌다.

카카오펅크와 크래프톤은 각각 시총 34조2072억원, 23조2519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펅크는 기존 금융 대장주였던 KB금융(21억5388억원)을, 크래프톤은 게임 대장주였던 엔씨소프트(13조4139억원)를 넘어선 셈이다.

이어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등 대어급 기업공개(IPO) 종목들이 줄줄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한방에  
추석선물 고민 해결!

명품홍삼 제품을  
국내 최저가격으로 공급보장!

# 80% 할인!

(일부품목, 추석까지이며 일부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6년근홍삼

제품가격 6천원부터  
제품종류 500여 개

SINCE 1996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25년 역사의 홍삼을 가장 잘 아는 기업

방문 환영 (인기상품 샘플완비)  
내방하시는 모든 분들께 사은품 증정!

상품문의 (친절상담)

☎ 02)2163-0044

☎ 010-5183-0048

📱 ID: KOREAHONGSAM

✉ haetter@naver.com

거래(카드,이체)하시고, 택배로 받으시게 됩니다.  
예금주: 대한홍삼(주) 기업은행 074-063579-01-010